

Special Edition 4

사료로서의 족보,

실상과 허상^記

글. 차장섭 (강원대학교 교수)



족보의 의미와 목적

족보(族譜)는 동족이 그들의 시조로부터 현재 자손까지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족보의 기능은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종적으로는 시조에서 현재 동족까지의 세계(世系)를 나타내 주며, 횡적으로는 현재 동족 상호 간의 혈연적 원근(遠近)관계를 표시해 준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중국 송나라의 영향으로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 시대의 족보는 족보라기보다는 족도(族圖)의 고문서 형태로 되어 있었다. 문벌귀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보(家譜), 가첩(家牒), 족보(族譜) 등의 용어는 있었지만 조상의 내외관계를 기재한 것은 족도(族圖)의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는 조선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왕실족보가 간행되면서 양반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15세기로부터 명실상부한 족보가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족보의 제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족보는 신분과 기록하는 방식,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편찬되었다. 첫째, 족보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왕실족보(王室族譜)와 사가족보(私家族譜)로 구분된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은 세계를 분명하게 하여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왕실족보를 편찬하였다. 왕실의 친족제도 정비와 왕실족보의 편찬은 사가(私家)의 족보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혼인을 통해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은 관료제와 신분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실과 마찬가지로 족보를 편찬하였다.

둘째, 족보는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족도(族圖)와 족보(族譜), 팔고조도(八高祖圖), 가첩(家牒) 등으로 구분된다. 족도(族圖)는 본인을 중심으로 종적인 조상세계를 계보화하고 횡적인 자녀와 내·외손의 파계를 정리하여 한 장의 도표로 만든 것이다. 족보(族譜)는 조상에 대한 가계 기록을 보다 체계화하여 서책(書冊)으로 편찬한 것을 말한다. 팔고조도(八高祖圖)는 자기를 중심으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조상 내외를 고조부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들어진

계보이다. 가첩(家牒)은 가보(家譜) 혹은 가승(家乘)이라고도 하는데, 동족의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직계에 한해서 발췌하고 초록한 세계표이다. 특히 가첩(家牒)은 절첩본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휴대용으로 적합하였다.

셋째, 족보는 수록하는 범위에 따라서 씨족보(氏族譜)와 만성보(萬姓譜)로 구분된다. 씨족보(氏族譜)는 특정 한 성씨의 혈통관계를 밝힌 것으로 가첩과 파보, 그리고 대동보로 다시 구분된다. 가첩(家牒)은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가계를 직계에 한정하여 기록한 계보이다. 대동보(大同譜)는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동성동본 모두를 기록한 족보이며, 파보(派譜)는 동성동본 가운데 특정파만을 기록한 족보이다. 만성보(萬姓譜)는 특정 성관을 기록한 씨족보와 달리 모든 성관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만성보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남의 집안까지도 연구하는 보학(譜學)이 발달하면서 타 성관의 가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편찬되었다.

조선 시대 족보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족보는 가문의 내력과 씨성(氏姓)의 계보를 밝혀놓은 일종의 씨족사 내지 가문의 역사이다. 따라서 족보를 간행하는 원래의 취지는 조상의 좋은 가풍(家風)을 이어받고 조상의 유덕(遺德)을 추모하는 소위 '존조(尊祖)'와 친척 간의 촌수를 밝혀 친소원근(親疎遠近)을 알며, 씨족 내부의 상하질서(上下秩序)를 확립함으로써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소위 '수족(收族)'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족보의 간행 취지는 변하였다.

조선 시대 족보는 가문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문벌(門閥)이 관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리 등용에 있어서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벌 즉 가문의 지위를 따졌다. 문벌을 따지는 것은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보는 것이다. 가문의 혈통은 가계(家系)가 얼마나 천한 혈통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계승되어 왔으며, 얼마나 양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왔는가에 따라 고하(高下)가 결정되었다. 가문의 전통은 가계 내에 얼마나 많은 과거급제자와 현관(顯官)을 배출하였는가에 따라 순위가 정하여졌다. 이 같은 현

상은 족보가 본격적으로 간행되는 조선 후기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반은 벼슬을 하여 번성한 가문인 벌열(閥閥)과 벼슬을 하지 못하여 한미해진 가문 곧 한족(寒族)으로 분화되었다. 이후 관리등용에 있어서 문벌은 거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인 벌열은 관직의 독점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문벌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각 가문은 족보의 간행을 통해 문벌 곧 가문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 각 씨족(氏族)은 족보의 간행을 통하여 족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동성동본의 씨족이 족보 간행을 통해서 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벌열화되어 가는 당시의 상황에서 중앙정치무대에 진출과 향촌사회에서 양반사족으로써 지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이다. 중앙정치무대에 이미 진출해 있던 벌열집단에게 있어서 동족 집단은 자신의 배후세력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향촌사회에 거주하고 있던 동족집단은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해 있는 동족과의 유대를 통해서 중앙정치무대로의 진출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도 그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족보 간행을 통해 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은 대동행렬자(大同行列字)를 사용하거나 시조 등 조상에 대해 제사를 모시는 것 등이었다.

조선 시대 족보는 등재된 동족집단이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기능하였다.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은 공적(公的)으로 양반임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어 양반으로써 신분을 인정받으면 현실적으로 균역이 면제되었다. 양반도 국가의 공민인 이상 균역을 질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신분적 강제외의 표현으로서 균역부담은 지배신분인 양반에게는 특권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이후 균역이 포납(布納)으로 일원화되기는 하였지만 양반은 현실적으로 균역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족보의 간행을 통해서 양반으로서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균역을 면제받고자 하였다.

족보의 위조와 대응

조선은 건국 이후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족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상과 자손, 그리고 친족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성리학적 예(禮)의 질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배층인 양반들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명분(名分)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신분적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는 위조되었다. 족보는 사문서(私文書)이지만 실제로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족보에 등재되면 양반으로 인정되어 균역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양반들은 이를 악용하여 돈을 받고 상인과 천인을 족보에 모략하였으며, 심지어 세력 없는 일가는 사적인 감정으로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18세기 후반 경제력과 문화적인 역량 면에서 양반엔 버금가는 평민들이 족보위조를

족보, 실상과 허상

주도하였다. 그들은 복잡한 예법을 몸에 익혔으며, 독서 경험도 쌓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법률을 비롯하여 행정관행을 숙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의사를 한문으로 표현할 줄도 알았다. 그들은 양반 신분을 증명하는 족보만 빼놓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웬만한 양반에 못지않은 실력자들이었다. 이들은 별파(別派)와 별보(別譜)라는 명칭으로 족보에 등재하였다.

별파(別派)와 별보(別譜)에 대해서 위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별파(別派)와 별보(別譜)는 가계의 연결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이른바 별보 혹은 별파라는 명칭 아래 족보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다. 허위로 족보에 등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구보(舊譜)에 누락된 자를 새롭게 등재할 때에는 별파(別派)와 별보(別譜)에 기재하였다. 앞서 간행된 족보에서 누락된 자의 가계를 새롭게 족보에 등재할 때에는 파계(派系)가 분명하고 종중(宗中)의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원보(原譜)에 입록(入錄)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록 혹은 추보에 수록하였다. 이는 구보(舊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누락자를 새롭게 족보에 등재를 허락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별파(別派)와 별보(別譜)가 20세기에는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으로 족보에 등재하는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성씨를 사용하지 못했던 노비마저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족보에 등재하지 못했던 중인 세력들이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족보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별파(別派)와 별보(別譜)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간행된 족보의 신빙성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학(譜學)의 유행은 족보 위조의 방어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학은 자기 집안의 족보뿐만 아니라 타 가문의 족보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보학은 조선 후기 문벌승상의 사회 풍조가 생겨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만성보(萬姓譜)는 보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만성보는 족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혼인 등을 위해 상대의 가계를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족보 편찬이 성행하면서 족보위조, 양반모칭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수록 그 진위를 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보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만성보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다.

족보의 사료적 가치

족보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족보에 대한 활용도는 극히 미약하다. 그것은 족보는 위조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족보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에 대한 적극적인 사료 비판과 타 사료와의 검증 작업을 통해서 분명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가능하다.

인물정보 측면에서 족보의 기록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정보 가운데 시조로부터 단선으로 내려오는 계보 기록은 위조된 것이 많다. 후대로 오면서 각 파들이 늘어나고, 타성(他姓)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시조는 시대적으로 점점 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정확한 전거를 확인할 수 없

는 시조로부터 단선으로 이어지는 기록은 신빙성이 낮다. 반면 본문에 기록된 인물정보는 비교적 정확하다.

강릉김씨의 경우 족보 기록과 호구단자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김씨 족보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강릉김씨 호구단자가 발굴되었다. 하나는 1711년(숙종 37)에서 1885년(고종 22)까지 작성된 41통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로 8대에 걸친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666년(현종 7)에서 1894년(고종 31)까지 작성된 58통으로 8대에 걸친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공적인 기록인 호구단자에 기록된 인물정보를 사적인 기록인 강릉김씨 족보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하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사조(四祖) 즉,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 등 모든 기록이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족보를 타 자료와 검증을 통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족보는 인구학, 가족사, 계보학 등에 매우 유용한 사료이다. 인구학은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과거의 인구 변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인구학에서는 호적 자료와 함께 족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역사인구학 자료로서의 족보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사에서 족보자료를 이용할 경우 사료 비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부 가족의 자녀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조선 전기에 남녀가 동등하게 기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성이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을 등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 새로운 집단이 등재됨으로 인해 족보에 등재되는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구사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족사 연구에 족보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가족은 사회집단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다. 가족사는 가족의 외적 구조인 가족 형태의 역사적 변천 과정, 가족원의 수, 가족의 결합범위, 가족의 역할 등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가족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족보를 통해서 가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계보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관계를 혈통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역사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때 혈통관계 또는 족적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보학은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현재 간행되는 상세한 전기나 인명사전도 이러한 계보학적 기초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고대에는 계보가 관리등용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어서 계보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족보의 의미

오늘날에도 족보는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일제 시대에는 출판물 간행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족보가 발간되었다. 한일강제병합으로 신분제가 철폐되고 노비 등 모든 신분이 성씨를 사용하면

서 사실상 누구라도 호적에 적힌 본관과 성씨를 근거로 해당 성관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된 족보가 필요하다.

첫째 남녀차별의 철폐이다. 족보에 수록하는 내용은 생몰연월일, 과거 관직 중심의 이력, 묘의 위치, 배우자의 가계 등이다. 그런데 족보의 기록 형식이 17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변화하였다. 조선전기까지는 친손(親孫), 외손(外孫) 구분 없이 모두 출생 순서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족보 기록 형식이 달라지면서 외손은 제외되고 친손(親孫)만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록순서도 선남후녀(先男後女)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즉 성리학(性理學)의 심화와 예학(禮學)의 발달, 종법적(宗法的)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17세기를 기준으로 족보에 기록하는 형식도 변화하였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 운번제가 장자에게 고정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재산상속방식도 자녀균분 상속에서 장자우위 상속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사회변화는 족보의 기록형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족보는 부계중심, 남자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오늘날 족보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친손, 외손을 모두 기록하는 남녀평등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신분의 차별이다. 향리나 서얼들에 대한 차별과 집권 세력이었던 벌열(閥閥)과 벼슬을 하지 못했던 한족(寒族)간의 차별의식도 없어져야 할 요소이다. 선조들의 신분적 귀천이나 직업적 차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혼의 자유 등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족보도 이 같은 사회인식을 반영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필자 소개

강원대학교 교수. 조선 후기 정치사회사를 전공하면서, 조선 후기 벌열 연구 등의 저서와 족보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다.

오늘날 족보는 가족사(家族史)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다. 따라서 세계사 보다는 한국사, 한국사보다는 지방사, 지방사 보다는 가족사가 중요하다.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역시 족보를 공부하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늘날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AN**

66

족보를 공부하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99

